

[금융 AI/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작성일시: 2026년 02월 13일 06:34 (KST)

1. 정부/금융당국 정책 동향

- **금융감독원, 정보보안 강화 강조:**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CEO들에게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MSN)

2. 금융보안 동향

- **설 연휴 겨냥 보이스피싱 증가 및 대응:**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B금융은 예방 영상을 전국에 송출하고 이동통신 3사도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N, 뉴시스)
- **AI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및 안면인증 논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1, 뉴닉)
- **대국민 캠페인:** '윤정아 챌린지'와 같은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뉴스1)

3. 4대 금융지주/시중은행 AI/AX 동향

- **우리금융:** 외부 출신 옥일진 상무에게 AX(고객경험) 혁신을 맡기며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딜사이트 플러스)
- **하나금융:**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신문)
- **KB금융:**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 예방 영상을 전국에 송출하며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SN)
- **지방은행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월드)
- **신한금융/신한은행:** 관련 뉴스 없음
- **NH농협금융/NH농협은행:** 관련 뉴스 없음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관련 뉴스 없음
- **지방은행 (BNK금융/부산은행/경남은행, DGB금융/대구은행, JB금융/광주은행, 제주은행):** 관련 뉴스 없음 (전북은행 제외)

4. 증권/카드/보험 AI/AX 동향

- 관련 뉴스 없음

5. 핀테크/빅테크 동향

- 관련 뉴스 없음

6. 주요 키워드 및 인사이트

- **주요 키워드:** AI 공포, 리스크오프, 보이스피싱, 금융소비자보호, AX 혁신, 정보보안 강화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글로벌 증시에서는 AI 기술 확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AI 공포'라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부상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 시장 전반의 '리스크오프' 심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금융권의 AI 도입 시 잠재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국내 금융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과 함께 안면인증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는 금융보안 분야에서 AI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금융사들은 AX(고객경험)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객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외부 전문가 영입 사례는 AX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금융당국이 CEO 책임하의 정보보안 강화를 강조하는 만큼, 금융사들은 AI/AX 도입과 함께 보안 거버넌스 및 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